

만남

2023년 9월
통권 22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순교자 성월 기도문	-----	3
신앙 나눔	-----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	5
영적 상담	-----	8
현대의 순교 이야기	-----	10
영혼의 트랙	-----	14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6
축일을 축하합니다	-----	20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1
공동체 소식	-----	22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3
월중 행사표	-----	24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5
미사안내	-----	26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제도 안에서
홀대받지도 않고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순교자 성월 기도(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오늘의 순교자 (최영숙 데레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스스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삶을 본받아 살다가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오직 신념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위대하고 거룩한 믿음을 보네!

마음그릇에 심은 믿음의 씨앗은 신앙의 싹이 트고
사랑그릇에 심은 진리의 씨앗은 복음의 잎이 돋아
평화그릇에 심은 자유의 씨앗은 축복의 꽃을 피워
행복그릇에 심은 봉헌의 씨앗은 은총의 열매되었네!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하였지만 십자가사랑을 품으며
때로는 순명하지 못했더라도 경외한 마음으로 살고
항상 복음 따라서 살지는 못해도 양심을 고백하며
주시는 목숨은 바치지 못해도 성령을 모시고 사네!

일상도 일생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듯이
내 마음이 평안해야 집안도 세상도 평화가 깃들고
내 영혼이 기뻐해야 가족도 이웃도 행복을 누리며
내 심령이 가난해야 성령의 불꽃도 타오르게 되네!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로 복음과 친교를 나누면서
주님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 베풀고 도와주며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고 매듭진 자와 용서로 풀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삶을 의탁하네!

평생을 똑같은 인생길을 걸지만 오늘도 헤매면서
영혼은 하늘을 향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라하고
육신은 세상을 향해 편한 안식처를 찾아가라 하니
마음은 주님을 향해 순교자들처럼 살아보라 하네!



연중 제 24 주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한다.

(마태 18,21-3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6장 “목자를 따라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썴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썴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값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여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 주었거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 준 적이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주고 믿어주는 만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선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하면 서운하거나 배신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운하거나 배신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는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그것은 두고 두고 우리를 커다란 믿음과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변치 않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은 어떠한 시련에서도 변치 않을 믿음을 줄 것입니다. 좋았다가 돌변하는 순간의 짧은 인연이 아닌 오랫동안 변치 않는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 사색의 향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9장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질문

Q.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하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대화 시간 내내 자기 얘기만 해서 아주 피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커녕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기 일쑤입니다. 전에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더니, 그분은 ‘나를 싫어하느냐?’ ‘평소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난리를 쳐서 대화 분위기가 몹시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심리치료에선 사람의 성격을 ‘성격장애’와 ‘신경증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격장애란 말 그대로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격장애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성격장애자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가진 생각을 서로 소통함으로써 서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폐적인 삶을 살거나 혹은 병적인 자기망상 안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성격장애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병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커녕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심한 집착을 가져서 즉,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문제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아상이 자랑스럽거나(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반대로 열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거나 상관없이 ‘자아’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온종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다가 짜증 내다가 하는 거울 공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심리치료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격장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진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을 더 곤욕스럽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배설물을 쏟아내는 일회용 변기통쯤으로 여기기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마디로 ‘진상’이지요.

어느 본당 신부가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려니 십자가의 주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신부는 “주님, 어쩐 일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하고 물었지요. 예수님은 “방금 기도하고 나간 놈 때문에 그런다” 하셨습니다. 신부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한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기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인데, 그놈은 날 보고 샷대질을 하면서 ‘주님이라며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항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 말할라치면 똥 싸고 도망치는 강아지처럼 나가버려서 그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단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자는 주님께서도 어찌지 못하신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이가 들면 노파심이 많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 ‘내 나이 돼 봐야 알아’ 하며 젊은 사람들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충고하면서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노인 진상’ 혹은 ‘성격장애자’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어떤 노인분이 젊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서 비결을 물었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하더랍니다. 나이 먹었다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밥을 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준다고 하시더랍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나타난 성격장애자들도 문제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라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요.



♥ 현대의 순교 이야기

라틴어의 '마르티리움'(martyrium), 즉 순교는 그리스어 '마르티리온'(martyrion)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 의미는 '증언' 또는 '증거'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피 흘림으로 순교자가 됨',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상태를 뜻한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순교는 그리스도의 진리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행동이다. 그런 면에서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계로 평가된다.

2000년 역사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다만 예수를 고백한다는 이유로 순교의 칼을 받았다. 그러한 순교의 현장은 오늘날 세계 안에서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현대의 순교 이야기를 다뤄본다.

■ 새 순교자들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2000년 동안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00만 명을 헤아리며, 그중 65%에 해당하는 4550만 명이 20세기에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기의 가톨릭 순교자들」의 저자 로버트 로열은 그런 면에서 20세기는 그리스도교 순교 역사 안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고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안토니오 소치 역시 저서 「새 순교자」를 통해 "20세기는 그리스도교 순교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시기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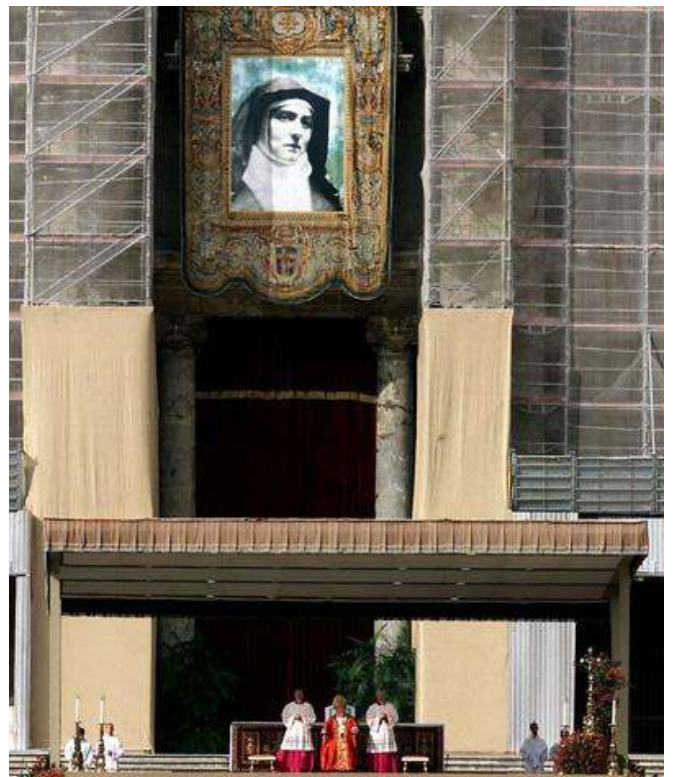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1998년 11월 대희년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기리고 그들을 열렬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현대의 순교자들이 보인 순교 정신을 되뇌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후 2000년 5월 7일 콜로세움에서 총 1만2692명의 그리스도인을 '신앙의 증인'으로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20세기 들어서 초세기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웅적으로 신앙을 증거했다"고 천명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신앙의 박해를 체험했던 교황은 "나 자신이

전쟁과 강제수용소, 박해의 공포를 경험하고 혹독한 고난을 목격했다"며 "이들 신앙의 증인들은 증오가 온 세상을 덮을 때에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설파했다.

대희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혔던 신앙의 증인 선포식에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이 망라된 명단이 발표됐고, 여기에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에디트 슈타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디트리히 본 회퍼를 비롯해 1980년 산살바도르에서 살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등이 있었다.



▲ 콜베 신부는 인간이 만든 지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영적 훈화·고해성사 등을 통해 사제직을 실천해 나갔으며,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 죽음마저 사랑으로 수용한 삶을 살았던 에디트 슈타인 수녀는 독일의 반 유대인 정책이 거세지면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서 선종했다. 훗날 그의 덕행이 인정됐고, 1998년 10월 시성됐다.

특히 6·25 전쟁의 희생자를 중심으로 1901년 제주 신축교난 당시 사망한 가톨릭 신자 206명과 성공회 신자 6명 등 215명의 한국교회 현대 순교자도 포함됐다. 20세기 들어와 이른바 이 같은 '새 순교자'들이 대거 나타나게 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 나치즘, 독재정치 다양한 배경의 내전 발생 등이 그 이유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베 신부뿐만 아니라 1939년부터

1943년까지 100여 명의 독일인 예수회 신부들이 수용소에서 처형되는 비극이 빚어졌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주로 남미의 독재정치 하에서 순교가 이뤄졌고 러시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등 과정을 통해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 등 20여 만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 순교자가 발행한 주 이유는 이슬람교와의 충돌이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인종 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 오늘날의 순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2년 제네바보고서는 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단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선언에서 정의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그리스도인 대상 폭력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 사건이 최소 1건 이상 발생한 국가 수는 40여 개가 넘고 있다. 2003년 발표된 '도움이 필요한 교회 구호'(ACN, Aid to the Church in Need) 이탈리아지부 보고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00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됐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2002년 한 해에만 127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였다.

ACN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와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지역 안에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정한 종교자유 침해 특별관심 국가 11개국 중 6개국이 들어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비이슬람교인들에 대해 실제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ACN은 밝혔다. ACN은 이때 북한에서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밝혔다.

최근 들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유다인을 미워하는 것이 무슬림의 종교적인 의미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도의 가톨릭 인권단체 '인도가톨릭연합'에 따를 때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그리스도교인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2008년에만 200건 이상 인도에서 발생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가톨릭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납치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1999년 독립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점령 하에서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다. 이외에도 세계의 화약고인 팔레스티나 지방과 가톨릭, 프로테스탄트의 뿌리 깊은 분쟁 역사를 지닌 북아일랜드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교황청

해외선교연구소가 발행하는 선교지 '몬도에미씨오네'에 의하면 전세계 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이들이 단지 정권의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 같은 희생이 단순 강도와 같은 범죄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내 관계자들과 인권단체들은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공산주의의 부활, 민족주의의 재부상 등의 이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무관심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의견을 펴고 있다.

1999년 12월 24일 대희년이 개막되면서 열린 성베드로대성당의 성문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장식돼 있었다. 순교의 역사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슬람 폭도에 의해 희생된 파키스탄의 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가 파괴된 집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다.

✦ 참된 행복 (허태범 요셉 수필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한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으나 건강과 경제적 기반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여러 요소를 받쳐주는 기본이 된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가 보다. 자아실현, 성취감 같은 기준들도 있으나 그 성취감이라는 것도 물질적 이익이 수반되어야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능력은 절대적 기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건강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행복의 기본이라고 믿는 이들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건강, 취업, 승진, 사업의 번창 등을 청하고 찾고 두드리며 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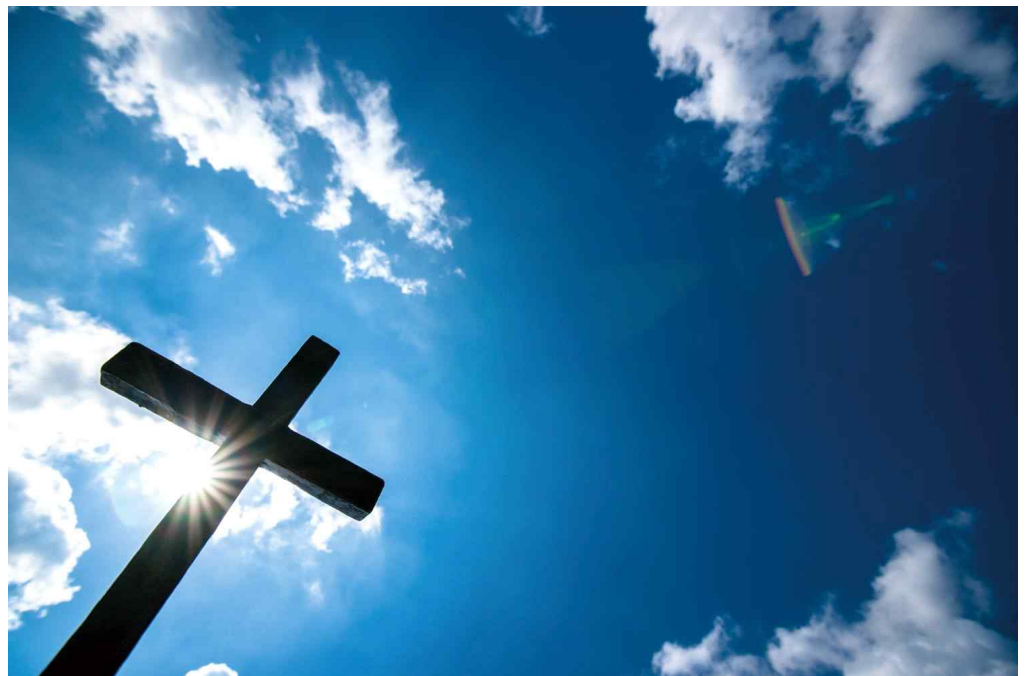
그러면 그 행복의 기본 조건이란 걸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이 빌고 있는 그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모든 기준과 목표가 물질적인 이익에 있는 이 시대에 시대와 동떨어진 산상설교의 행복관을 내세우시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복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민족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놓고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빛처럼 새하얗게 변한 옷을 입고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투영된 듯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한다. 제자들이 보기에 어찌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주실 위대한 스승님’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님이 일신상에 안락함을 줄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참새도 가지고 있는 동지조차 없어서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살다가 결국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고발당해 비참하게도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 당하고 매질 당하고 종국에는 벌겨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부 물려받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떨치더니 각자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할 듯하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 하시니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청년 따라 슬그머니 떠났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 시대의 행복관에 따라 저 구약시절 야곱에게 내리신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려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지니시지 않았고 그런 걸 주실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무당집을 찾았는데 무당이 시킨 대로 한 후 사업이 번창하자 교회를 접고 그 무당집을 교회 다니듯이 드나든다고 한다. 참으로 노선이 명확한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한다. 현세적 행복을 찾아 떠날지. 진리를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할지 내 신앙적 노선도 명확히 해야겠다.



♥ 우리 시대의 성인들 -십자가의 성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1891~1942), 축일 8월 9일

세속명인 에디트 슈타인(Edith Stein)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십자가의 성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자서전을 읽고 가톨릭으로 개종해 가르멜수녀회에 입회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철학을 연구하면서도 지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봉사의 삶을 살았고, 1942년 8월 9일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순교했다. 1999년 10월 시에나의 가타리나, 스웨덴의 비르지타와 함께 유럽 대륙의 공동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십자가의 성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철학도

에디트 슈타인은 1891년 10월 12일 독일의 브레슬라우(현재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한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목재상을 하던 아버지 지그프리트 슈타인은 에디트가 두 살 때 죽었고, 에디트는 유대인의 삶에 충실하고 근면하고 의지가 강했던 어머니 아우구스테 슈타인 밑에서 자랐다.

에디트는 총명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어머니 아우구스테는 그에게 비판적 사고를 강조했고, 에디트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어머니를 존경했다. 아우구스테는 남편 지그프리트가 남긴 가업을 이어가며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하지만 십대에 이르러서 에디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됐고 무신론에 빠졌다. 그는 “양심에 따라 내 의지로 기도하기를 멈췄다”고 회고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에디트는 브레슬라우대학에서 독일어와 역사를 전공했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독일어와 역사를 전공했지만, 그는 철학과 여성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다. 1913년 에디트는 괴팅겐대학으로 옮겨 현상학의 창시자인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의 제자가 됐고 조교를 맡았다. 후설은 나중에 에디트의 박사 논문을 돕기도 했다.

에디트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간호 업무를 배워 오스트리아의 야전병원에서 일했다. 전염병 전문 병동과 수술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돌아와 후설의 밑에서 다시 박사 학위를 준비했으며, 1917년 ‘감정이입’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에디트는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하며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후설이 직접 추천서까지 써줬지만, 당시 독일 학계에서 여성이 교수로 재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십자가의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
CNS 자료사진

■ 개종과 가르멜수녀회 입회

1921년 여름, 후설의 다른 제자였던 헤드비그 콘라드-마르티우스의 한 농장에 방문한 에디트는 서재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책을 만났다. 바로 아빌라의 테레사 자서전이였다. 밤새 책을 읽은 에디트는 “책을 다 읽고 나 자신에게 ‘이게 진실이야’라고 말했다”고 훗날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실존적으로 회의하고 있었던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왔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려 왔음을 깊이 깨달았다.

에디트는 1922년 1월 1일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 바로 브레슬라우로 가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가톨릭신자가 됐음을 알렸다. 에디트의 대모였던 헤드비그는 당시 “두 모녀가 서로 껴안고 울었다”면서 “이들은 거짓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요한 1,47 참조)”고 전했다.

세례를 받은 에디트는 곧바로 가르멜수녀회에 입회하려 했지만 지도신부의

만류로 입회를 연기했다. 대신 1931년까지 도미니코수녀회가 운영하는 학교와 사범학교에서 독일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에디트는 뉴먼 추기경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전 썼던 서한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리론」을 번역했다. 또 자신의 현대 철학 연구도 계속했다. 후설의 관념론적 철학을 벗어나 그리스도교의 실재론적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보이론수도원의 라파엘 발처 대수도원장으로부터 가르멜수녀회 입회를 허락받았다. 에디트는 1933년 10월 14일 쾰른의 가르멜수도원에 입회했고 십자가의 테레사 베네딕타를 수도명으로 정했다.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가 된 에디트는 1935년 4월 21일 유기서원을 했고, 1938년 4월 21일 종신서원을 했다.

종신서원 상본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남긴 “이후로 나의 유일한 소명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새겼다.

■ 아우슈비츠에서의 순교

나치의 유다인에 대한 위협은 날로 심해져 갔다. 쾰른의 가르멜수도원 원장 수녀는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를 비밀리에 네덜란드의 에히트 수도원으로 피신시켰다. 이곳에서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수도원의 허락을 받고 계속해서 연구와 저술활동을 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성 요한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저서 「십자가의 학문」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안전하지 못했다. 1942년 7월 20일 네덜란드 주교들이 나치의 반유다주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나치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로 개종한 모든 유다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해 8월 2일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에히트 수도원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 로자와 함께 체포됐다. 그는 로자에게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다른 수많은 개종한 유다인과 함께 임시수용소를 거쳐 8월 7일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 그리고 8월 9일 가스실에서 순교했다.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줄은 몰랐다”면서 “이들을 위해 매시간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분명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테레사 베네딕타 수녀는 1987년 5월 1일 독일 쾰른대성당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복됐다. 그는 순교자로 시복됐는데, 그가 죽은

것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신앙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교황청은 네덜란드 주교들이 나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데레사 베네딕타 수녀가 죽게 됐다면서, 그는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고 인정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8년 10월 11일 봉헌된 그의 시성식 강론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경험한 영적 여정은 특별한 내적 회개를 잘 드러내는데, 진리를 찾던 한 젊은 여성이 주님의 은총으로 순교자이자 성인이 됐다”면서 “이스라엘의 걸출한 딸이자 교회의 충실한 이 딸을 온 교회의 성인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1998년 10월 11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주례한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 수녀의 시성식.

CNS 자료사진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베레나	김 윤 하	29일	가브리엘	최 서 로
3일	그레고리오	김 유 석 김 성 호			박 준 영
8일	마리아	권 오 상		가브리엘라	남 재 민 박 연 심
				미카엘	이 현 후 최 희 로
17일	로베르토	강 일 남 이 도 선			미카엘라
				라파엘	김 혜 정 김 민 현
21일	요나	이 정 훈 박 요 나 안 태 응	30일	소피아	김 영 호 이 종 하 박 지 우
					심 재 은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세라피아	박경자(B)	21일	마태오	김명수(H)
6일	베아타	신의경(H)		가브리엘라	신윤경(O)
12일	마리아	양봉자(B) 유복희(O)	29일	미카엘	이종열(B) 김일환(H)
20일	하상 바오로	정하상(O)		라파엘	정근욱(H) 임석순(H)

❖ 9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27	217	501	286
10일	21	510	188	285
17일	288	512	175	284
24일	46	216	167	283

❖ 9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커피봉사
3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허채열 크리스티안 허영란 엘리사벳	신유경 (율리아)	4구역
10일	요셉마리아회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허선애 (임마누엘라)	1구역
17일	비르지타회	청년회	최승진 (바오로)	2구역
24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네스)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최승진 (바오로)	3구역

♥ 8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정미, 최장용, 노 수잔나, 강신행, 강순행, 박춘실, 정 마리아, 한말조

✿ 공동체 계좌 입금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손수희

✿ 교구 계좌 입금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김영복, 남궁춘배, 이영원, 허채열, 현영애, 최성자, 배성우, 김진호,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최화영, 육종인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20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20.630,87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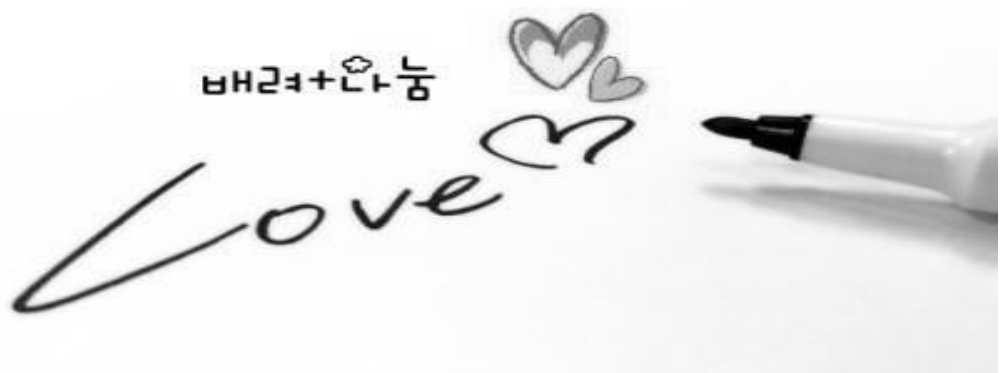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 12일 화요일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2. 9월 16일 토요일은 함부르크 대교구의 Nacht der Kirche (열린 교회의 날)입니다.
3. 9월 24일 주일미사 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4. 9월 27일(수) 11시 만남성당에서는 연례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5. 9월 29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는 10월 1일 주일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9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9월 2일 브레멘, 9월 9일 오스나브뤼크, 9월 23일 노르웨이,
9월 30일 하노버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9 월 행 사 표 (순교자 성월)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	토			
3	일	연중 제22주일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구역반장 월례회	브레멘
4	월			
5	화			
6	수			
7	목			
8	금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2구역 반모임	
9	토			
10	일	연중 제23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오스나브뤼크
11	월			
12	화		꾸리아	
13	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14	목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5	금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6	토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함부르크 대교구 Nacht der Kirche	
17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요셉마리아회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18	월			
19	화			
20	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21	목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22	금			
23	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오슬로
24	일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사목회	
25	월			
26	화			
27	수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연령회 월례회	
28	목			
29	금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한가위
30	토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하노버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